

어디에도 없는 흥미로운 책 다 있네



양림동 '라이트 라이프'



동명동 '파종모중'

광주에 잇따라 문 연 독립출판물 서점 2곳

■ 양림동 '라이트 라이프'

‘털 보고서’·‘부정선거 도감’ 등
독립영화·미디어 아트 상영도

■ 동명동 '파종모중'

가정집 2층에 여행·포토북·엽서...

인디 음반·아트 상품 함께 판매

며칠 전 재미있는 책자를 구입했다. 비정기 간행물 ‘사표’, ‘절망박스’에서 펴낸 책자 뒤편에는 ‘사장님 웬만하면 구독 금지’라는 글이 쓰여 있다. ‘사표 쓸 때만 만들 수 있는’ 이 희귀 책자 발간은 발행인 ‘믹’이 ‘울며 불며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인생의 첫 사표를 쓰기 싫고, 사표를 쓰는 과정조차 즐기자’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이런 저런 인연으로 얽힌 지인들과 퇴직금 털어 만든 70페이지 분량의 책에는 사표를 부르는 노래, 사표 지원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재미난’,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원’ 책을 구입한 곳은 광주 양림동 독립출판 전문 서점 ‘라이트 라이프’(LITE LIFE)다.

몇년 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화 트렌드 중 눈에 띄는 게 동네 서점과 독립출판이다. 독립출판(자가출판)은 판형, 유통, 콘텐츠 등에서 기존 업계와는 자유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출판물로 스스로 기획과 제작, 유통까지 맡아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낸다. 아트북, 프로젝트북, 에세

이, 정기 간행물 등 형태도 다양하다.

‘라이트 라이프’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독립출판 서점 ‘오월의 방’이 간판을 바꿔 단 곳이다. 원래 주인이 서울로 떠나면서 지인이었던 김대선(31)씨가 지난 2월 서점을 인수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던 김씨는 과감히 사표를 내고 책방 운영에 뛰어들었다. 그는 전공을 살려 가게 디자인과 책장 등을 다시 꾸몄다. “앞서기만을 위한 달리기를 멈추고 싶을 때 꿈을 잃고 열등감만 남은 우리는 이제, 걷기로 했다.” 직접 디자인해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가 인상적이다.

이 곳에서 파는 책들은 흥미롭다. 온갖 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털 보고서’나 대한민국 부정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모아둔 ‘에센스 부정 선거 도감’, ‘오빠 일기’, ‘삼년차 직장인’ 등이 눈에 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이 50부 짝은 시집과 포토북도 놓여 있다. 김씨는 ‘라이트 라이프’가 독립출판 전문 서점을 넘어 좀 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우선 서점에 딸린 작은 방을 독립영화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으로 꾸몄다. 작품을 제작하고도 좀처럼 관객을 만날 수 없는 지역 영화인이나 작가들과 관객들의 작은 접점을 마련하고 싶어했다. 방바닥에 둘러 앉아 영화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기 간행물 ‘건축 신문’도 일부러 협회에 전화를 해 가져다 두었으며 전공을 살려 독립출판물 제작도 직접 해볼 생각이다.

당초 전 주인이 주말에만 열었던 서점을 휴일 없이 매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열고 있다. 문의 010-9578-0811.

동구 동명동에 자리한 ‘파종 모중’에서

도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다.

‘파종모중’은 가정집 2층에 문을 열었다. 같은 건물엔 화가 신양호씨의 작업실, 주대희씨가 운영하는 카페 ‘도글도글’이 자리하고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서점에 들어서면 꼭 누군가의 소박한 다락방에 들어선 기분이 든다. 기차 여행과 관련한 글이 실린 ‘LINE’, 월간 ‘심폐소생술’ 등 잡지와 개인의 추억이 담긴 여행북과 포토북, 엽서 등 작은 공간엔 한번쯤 들여다 보게 만드는 책이 놓여 있다.

이 곳에서 ‘할머니의 요리책’을 구입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할머니가 직접 쓴 메모와 육성 녹음을 토대로 손녀딸이 그림을 그린 요리책이다.

주인은 독립출판물 제작을 준비중인 양지애(33)씨다. 당초 1인 출판사만 열 계획이었던 양씨는 서점까지 함께 구상하게 됐고, 지난 2월부터 손님을 맞고 있다.

“독립출판에 관심이 많아 서울에서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개인적인 책들을 좋아해요. 씨를 뿌리고 키워가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파종 모중’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책이나 음반, 아트상품 등을 서점에 놓고 싶다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 자신만의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고는 있는데 디자인을 하지 못해 망설이는 이들도 있고요. 또 이런 공간을 열고 싶다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습니.”

‘파종모중’은 독립출판물만 한정해서 판매하지는 않는다. 인디 음반과 아트 상품이 함께 진열돼 있고, 일반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도 판매할 예정이다.

월요일은 쉬며 매일 오후 1시~8시까지 문을 연다. 문의 010-7499-72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동희 작가 드로잉展

무등갤러리 10~16일



양동희 작가가 무등갤러리에서 10~16일 ‘순결에서 춤을 추다’를 주제로 드로잉 전시를 개최한다.

그동안 화려한 색채로 풍경과 인물화를 선보였던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순간을 화폭에 담은 크로키 작품을 선보인다.

1995~2016년 약 10년간 작업했던 결과물들이다. 한지와 콩테만 사용했던 초기 작품과는 달리 후기작들은 화선지와 광복천 등에 먹·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화폭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붓질로 작가는 짙은 화면을 구성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시시각각 동작을 바꾸는 모델을 관찰하는 작가 시선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단순히 동작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표정을 읽어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양씨는 “현장감 있는 크로키 작업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하다”며 “인체를 통해 개인의 인생여정을 표현하려 하지만 참으로 밋고도 기나긴 여정이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첫번째 개인전 ‘삶의 편린 그리고 추억’을 시작으로 일상 속 풍경을 선보이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명회

10일 전남문화재단서...법률상담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태)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중)는 오는 10일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재단 문화마당에서 저작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요문화학교 선정 단체 실무자 및 강사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기초 설명과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또 상담장에서 개별적으로 법률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불공정 계약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추후에도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각 지역 문화재단 등과 협력, 저작권 교육 및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55-792-0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순천점 | 중앙시장 앞 061-752-9940 서울점 |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과죽음 맛집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